

退溪와 宋儒의 자연존중 정신**

佐 藤 仁*

序 論

동아시아의 이른바 삼림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연을 애호하고 존중하며, 또한 자연에 귀의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기풍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기후가 온화하고 천연적으로 風光明媚한 풍토여서, 이러한 천연적인 자연의 혜택을 받으며 오랫동안 농경생활을 계속해온 것이 그 주된 원인일 것이다. 동아시아의 자연은 그곳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풍족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교 사상 문학 예술 등과 같은 향기높은 정신문화도 길러 주었다. 대자연 속에서 眞善美의 이상을 발견한 것은,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뛰어난 공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동아시아의 자연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다정했던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水害와 旱魃 그리고 지진 등으로 인간에게 고통과 공포를 가져다 준 적도 있었다. 그러나 ‘苛政은 호랑이보다도 사납다.’¹⁾라고 한 공자의 말이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 惡政에 시달리는 고통이 자연이 주는 재해보다도 훨씬 가혹한 것이고, 또한 자연 재해의 발생은 실은 정치를 잘못된 것에 기인한다고 믿는 이른바 天譴說도 있어서, 자연보다도 인간에게 그

* 久留米대 교수

** 퇴계학연구소, 『퇴계학보』 제81호(1994) 게재논문

1) 『禮記』檀弓篇下.

책임을 묻는 경향이 농후하였다.²⁾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자연을 인간과 적대하는 것, 그리고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마치 자애로운 부모처럼 때로는 형제와 교사처럼, 또 어떤 때에는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대한 적이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확연하게 그어, 인간이 자연을 향해 자기의 존재 내지는 창조력을 주장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조심스러워서, 자연을 정복한다거나 지배한다 또는 개조한다고 하는 등의 엉뚱한 야심을 가지지 않았다.³⁾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고, 자연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은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현상인데, 이것이야말로 인류사상 가장 고상한 문화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재 자연환경의 보호를 빈번하게 외치고 있는데, 일찍이 동아시아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는 투의 불경스럽고도 잘난 체

2) 퇴계도 『퇴계문집』 권6, 戊辰6條疏 제6에서와 『언행록』 권3, 10월 13일 入侍夕講進啓條에서 漢代 董仲舒(179~104 B.C)의 天譴說을 인용하여 국왕에게 仁政을 베풀 것을 進講한 문장이 있다. 또한 『퇴계문집』 권2, 18일 朝晴感興詩에는 「하늘에 있어서는 때(時)가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책임이 있노라」라는 시구도 있다.

3) 본론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人爲 즉 인간의 창조력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퇴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언행록』 권2, 講辨條에서, 「老者安之」의 註에 程子が 굴레와 고삐를 들어 비유한 뜻을 물었다. 선생께서는 말머리의 형체는 스스로 굴레와 고삐를 받을 理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형체에 의해서 굴레와 고삐를 만들어 맡을 부리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나이드은 이가 편안하게 봉양받을 이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성인이 그 이치에 의해 노인을 편안하게 해주고, 젊은이는 스스로 감싸줌을 받을 이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성인이 이를 감싸주는 의미와 같다고 적혀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유력한 단서가 될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퇴계가 의거하고 있는 『논어』 公冶長篇 「顏淵季路侍子曰章朱注」 所引의 程子の 말과, 인위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한 곳에서 자연을 보는 『莊子』 秋水篇의 「소나 말이 다리가 넷인 것은 天이라 이른다. 인간이 제어하기 쉽게 말머리에 굴레를 씌우고 소에 굴레를 채우는 것은 人이라 이른다」라는 一文과 비교 검토해 보고, 더 나아가 『楊龜山全集』 권 11, 語錄2의 或問操心條 등을 참조하면, 유가와 도가의 天人觀의 차이, 다시 말하면 자연과 人爲에 관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쫌대는 사고방식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기술하는 한국의 碩儒 李退溪(1501~1570)도 자연을 누구보다도 애호하고 존중하며, 인간의 이상을 자연 가운데에서 발견하고자 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이퇴계의 시를 읽어 보면 「幽貞」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陶山書堂으로 들어가는 싸릿문에 손수 「유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퇴계가 이 「유정」이라는 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중 하나에 「幽貞, 乾坤을 믿는다.⁴⁾」라는 말이 있다. 「유정」이란 만일 道가 이 세상에서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名利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深山幽谷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숨어살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를 굳게 지켜간다는 의미이다. 「乾坤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미천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굳게 행하며 살면 吉(행복)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乾坤 즉 대자연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주역』 履卦 九二의 爻辭에 「履道坦坦, 幽人貞吉」(넓은 길을 걸으며, 마음은 평안하여 아무런 막힘이 없다. 세상의 명예와 利欲에 사로잡히지 않으므로 마음이 고요한 것이 마치 隱者와 같다. 홀로 자기 몸을 깨끗이 하여 그 행동이 바르고 견고하므로 길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말의 典據이며, 이와 같은 主旨의 말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퇴계도 애독했을 것이 틀림없는 陶淵明의 「歸去來辭」 가운데 나오는 「천명을 즐기는데,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하리오.」라는 一句와, 또한 천명에 대하여 절대귀의의 정신을 논한 張橫渠의 『西銘』에 나오는 「살아서는 부모와 하늘에 순종하고 섬기며, 죽음에 임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갈 것이다.」라는 一句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퇴계가 대자연에 대하여 일종의 종교적이라고까지 할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이로 미루어 퇴계가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사색의 깊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4) 『퇴계문집』 권1, 當軒綠叢花.

I.

이퇴계가 豊基郡의 군수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지은 「遊小白山錄」⁵⁾에 「대체로 우리 동방의 習俗에는 속세를 떠나 은둔생활을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一句가 적혀 있다. 중국 역대의 史書에는 반드시 「隱逸傳」을 두고 있어, 은자에 대해 그 나름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太極圖說』의 저자이며, 朱子(1130~1200)가 宋學의 開山先河라고 우리러 본 周濂溪(1017~1073)에 대해 ‘마음 속이 飄灑하여 원래부터 높은 기상을 가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산수를 즐겨,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그 곳을 배회하였다.’⁶⁾라고 적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면 周濂溪 역시 樂山樂水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으며, 만년에는 景勝地 廬山에 隱棲할 정도였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는 산림에 사는 은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는 커녕, 자연을 즐기는 이러한 고상하고도 우아한 여유를 반갑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도 홀로 산림의 즐거움을 희구해 마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퇴계였다.

퇴계가 전 생애를 통해 자연을 얼마나 애호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자연의 風光 風物을 읊은 이른바 山水詩가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거니와, 또한 『언행록』 권3 「樂山水」⁷⁾條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일화에 의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 『퇴계문집』 권41, 당시 퇴계는 49세였음.

6) 『伊洛淵源錄』 권1, 朱子撰述周濂溪先生事狀 참조. 퇴계가 자연을 각별히 애호한 것은 물론 퇴계 자신의 資質에 의한 것이 크지만, 동시에 퇴계가 자신의 학문 형성의 기반으로 삼아 尊崇했던 주렴계와 주자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퇴계의 제자인 金誠一이 스승에 대해서 말한 이 일화는, 주자가 주렴계를 평해서 「濂溪는 당시 政事に 精絶한 사람을 보면 宦業人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산림에 뜻이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속이 灑落하면서도 仙風道骨이 있다고 했다. 그의 학문을 아는 자가 없다.」고 『朱子語類』 93에서 기술하고 있는 말을 연상시키고 있다.

7) 「言行通錄」 권3, 賞適之樂 참조.

○戊申 正月(퇴계 48세) 丹陽 郡守에 임명되었다. 선생이 외직을 청원한 것에는 이미 깊은 뜻이 있었거니와, 이 곳의 군수를 원한 것은 단양의 산수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이 곳 龜潭·島潭 같은 곳은 그 중에서도 경치가 뛰어났지만, 그 당시 잇따른 흉년으로 기근을 구제하느라고 바빠서 자주 그 곳에 오가지를 못했다. 가끔 공무의 여가를 틈타 간혹 경치를 감상하다가 흥이 나면 시도 읊었다.

(李安道)

○선생이 단양과 풍기 두 고을에 계실 때, 淸風은 산뜻하고, 마음 속엔 한 점의 응어리지 막힘이 없었다. 공무의 여가에 다만 書史로써 스스로 즐기고, 때로는 초연하게 홀로 산책하며, 수석 사이를 배회하곤 했다. 田野의 농부들은 선생을 마치 신선같이 여겼다.

(金誠一)

○만일 산수가 明媚하고 폭포가 쏟아지는 곳이 있으면, 때로 홀로 그 곳에 가서 시를 읊으며 즐기다가 돌아오셨다.

(李德弘)

이러한 일화를 보면, 퇴계는 관리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에도 여가를 틈타 자연 가운데를 배회하고 그 때마다 느낀 흥취를 시로 읊으며 즐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연을 애호하고 자연에의 회귀를 원해 마지 않았던 퇴계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소원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림에서 살려는 바람은 그 누군들 없으리오마는 발을 한 번 세상 티끌 속에 잘못 내디디면, 산림 속에서 조용히 살려는 염원을 이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⁸⁾.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은 願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官

8) 『퇴계문집』 권12, 答李君浩書. 당시 퇴계는 53세였음.

계에 몸을 던지면, 이러한 소원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러한 소원이 겨우 이루어져 고향인 陶山에 隱棲할 수 있게 된 것은 만년이 되어서였다. 이 때의 감회를 퇴계는 「陶山記」⁹⁾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아, 내 불행히도 먼 시골에 태어나 질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은 없었지만, 다만 일찍부터 이 산림 사이에 즐거움이 있는 줄을 알았다. 중년이 되어 망령되어 世路에 나가 세상 풍진에 구르고 넘어져 나그네로 옮겨 다니다가 스스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거의 죽을 뻔하였다. 그 후 나이가 들어 병은 점점 깊어가고 매사가 발에 걸려 넘어지듯 하니,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관직에서 벗어나 밭이랑에 본분을 세우니, 전일의 이른바 산림의 즐거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닿았노라.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쌓인 병을 낫게 하고 숨은 걱정을 확 풀어버려, 늘 그막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를 버리고 또한 어디서 구할 것인가.

중국이든 조선이든 간에, 당시 유교권 국가에 태어난 지식인이 과거에 합격하여 官途에 나아가는 것은 이를테면 숙명과 같은 것으로,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당연하게 기대하는 인생행로였다.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유교의 경전인 사서 오경을 비롯하여 先聖先賢의 書, 당시에는 특히 주자의 學說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유교권 국가가 官人에게 기대하는 것이 經世濟民, 治國平天下의 道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요, 이상일 뿐 관인들의 현실의 모습이 반드시 이상대로 실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營利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얻지 못하면 슬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다.¹⁰⁾

9) 上同, 권3, 詩.

10) 上同, 권10, 與曹樾仲. 당시퇴계는 53세였음.

퇴계의 이 짧은 발언이 단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官途에 나아가는 최대의 목적은, 실은 영리의 획득에 있었다. 관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영리를 얻으면 기뻐하고 잃으면 근심하는 등, 한 순간도 마음 편안한 때가 없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이것이 관인 세계의 실상이었다. 때로 이러한 영리를 에워싸고 벌어지는 경쟁이, 적의와 증오에 가득차 격렬한 권력투쟁으로까지 전개되고, 土禍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적도 있었다. 퇴계도 이러한 渦中の 희생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도연명이 간파한 것처럼,¹¹⁾ 결국 官界란 새장에 비견될 수 있는 숨이 막히는 답답한 세계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 관인들의 대부분은 이상을 잃어 버리고 옛 성현의 정신에는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퇴계도 이와 같은 정치적 현실 속에서 한 번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관인의 실체를 알게 됨에 따라, 퇴계는 先聖先賢들의 가르침과 현실의 관인들의 실상에는 지극히 큰 落差가 있음을 감지하고, 관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北宋의 程伊川(1033~1107)은, 관직 생활은 인간답게 살려는 의지를 빼앗는다고 말했다.¹²⁾ 이 점은 퇴계도 틀림없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¹³⁾

이리하여 퇴계는 관인으로서 영리추구에 급급하게 살기 보다는, 한 사람의 독서인으로서 淸貧을 달게 받으며 산림 가운데서 근신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初志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老病을 이유로 국왕의 召命을 사퇴하고 스스로 세상을 버리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퇴계가 61세 때 지은 「陶山記」에는 宿願을 이룬 기쁨이 넘치고 있다. 前掲 「陶山記」 가운데의 「산림의 즐거움을 버리고 또한 무엇을 구할 것인가。」라는 一句는, 퇴계의 숨어 살려고 하는 결의가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11) 도연명의 대표작인 「田園之居로 돌아옴」 5수 가운데 제 1수에, 「오랫동안 樊籠 가운데 갇혀 있었으나,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노라。」고 적혀 있다.

12) 『河南程氏遺書』 권15.

13) 『퇴계문집』 권25, 答鄭子中.

다. 어느 宋儒의 말에 「더이상 무엇을 구할 것인가. 마음은 이미 俗事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라는 글이 있다. 그렇다면 퇴계의 「이것을 버리고 또한 무엇을 구할 것인가.」라는 一語는 다만 안이하게 발해진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퇴계의 이른바 산림의 즐거움이란, 花草魚鳥라고 하는 개개의 자연물을 관상하는 취미이거나 오락적인 기분전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¹⁴⁾ 좀더 심오한 정신적인 요구 말하자면 마음의

14) 퇴계가 자연을 애호했던 이유 중 하나에 따르면 울적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들어 있었다. 자연에서 멀리 떨어진 都會에서 관리 생활을 하고 있던 鄭靜而(1509~1561)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낸 것이 그 예이다. 「나 홀로 장빈에 누으니, 날로 몸이 쇠약해짐을 느낍니다. 離索의 근심, 옛사람이 실로 내 마음을 알아본 듯합니다. 만약 林泉魚鳥의 즐거움이 없었더라면, 세월을 보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과 같은 분들은 오랫동안 城 중에 있어서,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을 모르리라 매양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海郡行을 규제한 것은 그간 오랫동안 관아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턱을 손상시킬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퇴계문집』 권13) 자신은 고독하고도 쓸쓸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지만, 운 좋게 林泉魚鳥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 관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대들에게는 이 林泉魚鳥의 즐거움을 알 턱이 없으리라. 도대체 어떻게 기분전환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정이는 『天命圖說』의 原著者로서 이름난 사람인데, 어지간히 술을 좋아했던 듯, 술의 힘을 빌려 관리 생활에서 쌓인 울분을 풀고 있었던 것 같다. 퇴계가 정정이에게 林泉魚鳥의 즐거움을 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술을 마시는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도 건강한 것이어서 턱을 해치는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계가 충고한 보람도 없이 정정이는 술 탓으로 건강을 해쳐 命을 단축했던 것 같다.(『퇴계문집』 권25, 答鄭子中) 이 林泉魚鳥의 즐거움은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지나치게 효과를 의식한 나머지, 偃苗強探 즉 밭에 심어놓은 싹을 뽑아올려 빨리 生長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무리하게 학문을 서둔 나머지 心氣의 병에 걸린 南時甫(1528~1594)에 대해서, 「먼저 세간의 窮通得失 榮辱利害를 일체 도외시하여, 이를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이런 마음을 힘써 터득하게 되면, 생각컨대 그 근심 중 다섯 여섯은 나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일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酬酢을 적게 하고 嗜慾을 절제하고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고 유쾌하게 기분전환을 하십시오. 圖書와 花草를 완상하고 溪山魚鳥의 즐거움으로 하여금 진실로 뜻을 즐겁게 하고 감정에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것에 이르러서는 이를 항상 접하기를 싫증내지 마십시오. 심기로 하여금 항상 순탄한 상태에 있도록 하여 울화가 치밀어 성을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要法입니다.」(『퇴계문집』 권14, 答南時甫)라고 기술되어

淨化라든가 인격의 도야 더 나아가 究極的으로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추구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퇴계가 도산에 隱棲할 때의 심경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중 하나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大舜親陶樂且安 : 大舜은 스스로 질그릇을 만들어 써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마음은 즐겁고도 평안했었고,
 淵明躬稼亦歡顏 : 도연명도 논밭을 손수 갈아야 했지만 그 얼굴은 언제나 즐거움으로 환하였네.
 聖賢心事吾何得 : 舜이나 도연명이 마음에 그리고 있었던 세계를, 나같은 사람이 어찌 알 수 있으리오마는,
 白首歸來試考槃 : 나이들어 이제야 간신히 돌아온 고향에서, 나도 옛 聖者의 흉내를 내어 은둔하여 살아 보려네.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분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관상하는 즐거움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시보에게 답한 이 시한은 단순히 기분전환을 위한 자연관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禪學的인 頓悟主義를 배척하여, 학문공부가 자연히 행해짐을 높이 보는 漸進主義의 입장, 바꾸어 말하면 自得을 중시하는 입장을 말한 것에 주안점이 있었다. 본론에서는 특별히 취급하지 않았지만, 퇴계의 자연존중의 입장을 생각할 경우, 그것이 학문 공부면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예로서 「도산기」 가운데 나오는 一文을 들어보겠다. 「고요한 방안 도서는 벽면 가득히 쌓여 있고, 책상을 마주하고 默坐해 敬으로서 마음을 보존하고 研索하다. 왕왕 마음에 깨달아 아는 것이 있으면 문득 다시금 欣然하여 먹기를 잊는다.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麗澤에 의한다. 또한 언지 못하면 憤悱를 發하여도 감히 억지로 이를 통하려 애쓰지 아니하고, 잠시 한편에 놓아 두었다가, 때로 다시 꺼내어 마음을 비우고 思繹하여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됨을 기다린다.」 아울러 自得의 自에는 자연과 獨自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으나, 주자는 「자연히 얻는 것」이라 하여 독자라는 해석에는 찬성하지 않았음(『주자문집』 권39, 答柯國材書)을 말해 둔다.

이것은 『퇴계선생문집』 권3에 있는 「陶山雜詠」 18수 가운데의 제1수, 「도산서당」이라는 題가 붙은 시인데, 먼저 이 시가 의미하는 바를 一瞥해 보겠다.

우선 「大舜은 스스로 질그릇을 만들어 써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마음은 즐겁고도 평안했네.」란 제1구인데, 이것은 『맹자』에 典據가 있다. 중국 고대의 聖天子 舜은, 아직 가난하고 미천한 위치에 있었을 때, 歷山에서 농사를 짓고, 河濱에서 질그릇을 만들고, 雷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으나,¹⁵⁾ 것처럼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하늘을 원망하는 일 없이, 「마치 그러한 상태로 일생을 마칠 사람처럼 悠然하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다.¹⁶⁾ 이것은 舜이 가난과 미천한 위치에도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지극히 높은 경지에서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퇴계의 제자인 金誠一(1538~1593)은 도산에서 은사하고 있을 당시의 퇴계를 묘사하여,

선생님은 언제나 책을 몸 가까이 두시고, 향을 피우고 고요히 앉아, 마치 이대로 일생을 마칠 사람처럼 유연하게 계셨다. 그러기에 선생이 신분이 높은 관인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¹⁷⁾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승 퇴계의 생활태도를, 「마치 그런 상태로 일생을 마칠 사람 같았다.」라고 일컬어진 舜의 자세와 비교하여 칭송함과 동시에 퇴계 자신도 순임금과 같은 인생관을 이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蛇足이긴 하지만 이 시 가운데에서 퇴계가, 舜의 陶器 굽는 이야기만을 택한 것도, 퇴계가 은사해서 산 陶山이란 명칭의 유래가 일찍이 질그릇을 만들던 가마터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맞춘 것이리라.

다음은 「도연명도 논밭을 손수 갈아야 할 처지였지만, 얼굴은 언제나

15) 『맹자』 公孫丑章句上, 同朱注.

16) 上同, 盡心章句下.

17) 『언행록』 권3, 樂山水.

즐거움으로 환하였네.]란 제2구인데, 이것은 퇴계가 「歸去來辭」나 「歸田園之居」 등의 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판나라 도연명의 유유자적한 躬耕생활을 읊은 것이다. 도연명의 歡顏은, 大舜의 안락과 마찬가지로, 전원에서의 躬耕 생활이 기쁨에 넘친 생기 가득찬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할 것이나, 도연명은 古來로 전원시인 자연시인 또는 은일시인으로 지칭된 사람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그의 「飲酒」 시 가운데 나오는 이 「心遠」이란 두 글자는, 도연명의 고결하고도 고매한 심경을 남김없이 표현한 말로써 宋明시대 유학자들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송명 유학의 계통에 속해 있었던 퇴계도, 도연명에게 남다른 경의를 표하고 있었으며, 도연명 시에 화답한 시도 몇 수가 지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성현의 心事를 내 어찌 알리오마는」의 제3구 가운데의 「성현의 心事」란, 舜이나 도연명이 마음 속에 그리고 있었던 세계를 말한다. 그것은 부귀빈천에 의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의 경지이다. 「내 어찌 알리오마는」이란 말은, 자기 자신은 아직 舜이나 도연명과 같은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퇴계의 겸손함 내지는 반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나이 들어 간신히 돌아온 고향에서 이제야 나도 옛 성현의 흉내를 내어 은둔하여 살아보려고 하네.]란 제4구는, 이것 역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염두에 두고 지은 一句일 것이다. 이 가운데 나오는 「考槃」은, 퇴계의 다른 시 가운데에도 종종 나오는 말이다. 또한 도산서당에 인접해 있는 月瀾庵에 考槃臺라고 이름지어진 전망 좋은 高臺가 있는데, 퇴계는 종종 이곳을 산책하며 시를 짓고 있다. 원래는 『시경』 衛風 가운데 나오는 시로서,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은자의 즐거움을 읊은 시라고 전해 오고 있다. 「試考槃」이란, 순이나 도연명 같은 眞樂의 경지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지만, 자신도 노년이 되어 이제야 간신히 고향에 돌아와, 옛 현인처럼 산림에서 사는 즐거움, 말을 바꾸면 자연을 친구로 삼고 사는 은둔 생활의 즐거움을 향

유할 수 있게 된 퇴계 자신의 기쁜 마음과, 더 나아가 이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순이나 도연명이 향유한 眞樂의 경지, 이를테면 아무리 가난해도 동요되는 일없이 마음은 항상 안락하며 또한 그러한 기쁨에 넘치는 경지에 조금이라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퇴계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도산서당」이란 시에서 퇴계가 특히 순과 도연명을 들어 「성현의心事」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거하는 바가 있었다. 주자가 편찬한 책 가운데 『伊洛淵源錄』이 있는데, 이 책은 물론 퇴계도 읽은 적이 있다.¹⁹⁾ 이 책 권10, 「文靖公楊時」부에 胡安이撰한 「龜山誌銘辨」이라는 一文이 수록되어 있다. 「도산서당」이란 시 가운데 나오는 「성현의 심사」란 말이 만약 다른 데 의거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一文이 틀림없을 것이다.

북송 말기부터 남송초에 걸쳐서 활약한 유학자 중에 胡安國(1074~1138)이 있다. 스승인 楊龜山(1053~1135)이 세상을 떠나자 호안은 그의 墓誌銘을 쓰는데, 후일 그 묘지명에 관해서 아들인 胡五峰(1106

18) 「도산기」에는 或人の 말을 빌려 옛 사람의 즐거움은 마음에 얻은 것이지, 외물의 도움을 빌린 것은 아니다. 예컨대 顏淵이나 原憲은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山水의 즐거움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산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물을 기다려 얻게 되는 것으로 眞樂일 수 없다는 것을 신고 있다. 이에 대하여 퇴계는 “그렇지 아니하다. 저 안연과 원헌의 처한 바는 다만 그 때 우연히 그러했는데 능히 편안하게 여겼음을 귀하다고 할 뿐이다.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경지를 만나게 했다면 그 즐거움이 어찌 우리들보다 깊은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孔孟도 산수에 대해서 일찍이 몇번인가 일컬어 깊이 깨닫게 하였다. 만약 참으로 그대의 말과 같다면, 공자의 「나는 僇點을 許與한다.」는 탄식이 무엇 때문에 특히 沂水 위에서 발해졌고, 주자의 이른바 卒歲의 소원도 무슨 이유로 하필이면 홀로 蘆峰 꼭대기에서 읊었겠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요컨대 안연이나 원헌에게 산수의 즐거움이 없었던 것은 우연히 그러했을 뿐으로, 만일 그들이 아름다운 산수를 대했다면 우리보다도 더 깊은 즐거움의 세계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퇴계의 반론이다.

19) 『퇴계문집』 권20, 答黃仲舉. 同卷21, 答李剛而書. 동권41, 抄醫閻先生集府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 등 참조.

~1162)이 부친 호안국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龜山誌銘辨」인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그것은 호안국이 스승 楊龜山의 고결한 마음바탕을 칭송하여, 「더 이상 무엇을 구할 것인가. 마음은 俗事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라는 一句를 적어 놓은데 기인한다. 이 「마음은 세상사에서 이미 떨어져 있는데」란 말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東晉의 시인인 도연명의 「飲酒」시 20수 가운데 제5수에 나오는 「心遠」이란 두 글자에 典據가 있다. 도연명은 명예다, 이익이다, 지위다 하면서 공명부귀만을 추구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속세간의 생활을 단념하고, 대자연을 친구삼아 인간세계의 번거로운 법제에 속박받는 일 없이 자유를 구가하며 마음내키는 대로 즐기고 산 시인이다.

이러한 생활태도를 은일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자연²⁰⁾이라고도 말하는데, 도연명의 시에 나오는 「심원」이라는 두 글자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이러한 초속적인 은자 본연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며, 마음이 속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 그런데 호안국과 楊龜山 두 사람은 누가 무어라 하여도 관인으로서 실사회 가운데서 일을 하며 산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양구산의 마음의 바탕을 칭송하기 위해, 원래는 은자 본연의 자세를 나타내는 이 「심원」이란 두 글자를 사용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문이 일어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과연 호안국의 次子이며 영재로 이름난 호오봉이 이를 문제삼아 부친에게 그 진의를 質正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호안국의 답은 다음과 같다.

陶工은 옛 逸民이다. 그 경지가 대단히 높아, 慧遠(東林寺 禪僧)의 초청을 받았으나 이를 달가워 하지 않았고, 劉(遺民)·雷(次宗)와 같은 무리와 나란히 놓을 수 없다. 그 시를 보건대, 「사람사는 마을에 초가 집을 지었네. 그래도 車馬의 소란스러움은 없도다.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마음이 속사에서 멀어지면 살고 있는 땅도 절로

20) 前掲 도연명의 「歸田園之居」에서는 그 어떠한 것에도 束縛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를 「자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두메산골처럼 치우게 되네。」 이 시를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一句를 들어서 이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써 龜山의 현자됨을 想見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인은 공명부귀 때문에 마음이 얽매어 있는데, 어느 결에 이러한 기상이 있겠는가. 다만 깊이 이 「마음은 이미 속사에서 떨어져 있는데」란 一句를 음미한다면, 맹자의 이른바 원하는 바 없이, 밭갈고 질그릇 구울때는 마치 그대로 일생을 마칠 듯이, 천자가 되어서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기상도, 역시 이 가운데 있다 할 것이다.

이 一文 가운데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호안국이 도연명과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은 도연명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인이지만, 당시는 기껏해야 상중하 가운데서 중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평범한 시인에 지나지 않았다. 세속에 아첨하지 않았던 도연명 쪽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 도연명의 시가 겨우 인정받게 된 것은 도연명이 세상을 떠난 지 300년도 훨씬 지난 唐代의 일이며, 더욱더 높은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은 송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송대 사람들이 도연명을 높이 평가한 데에는, 송대의 지식인들이 도연명과 같은 이러한 류의 고매한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이 고매한 정신문화란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자연존중 자연애호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의 자연이란 우리들 눈으로 볼 수 있는 山林泉石 草木魚鳥와 같은 개개의 자연물 내지는 자연현상 그 자체라기보다도,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그 기상을 말하는데, 이로 하여금 마음을 정화하고 인격을 도야하는데 유용하게 쓴 것이다. 때로는 우뚝 선 산의 모습이나 개울의 흐름과 같이, 또 어떤 것은 창공에 떠가는 흰구름과 같이 혹은 日月寒暑의 왕래처럼, 때로는 강가에 떼지어 날으는 갈매기처럼, 혹은 深山幽谷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피어 향기를 발하는 蘭과 같이, 유유자적하여 고집부리거나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또한 경쟁하거나 서로 으르렁거리거나, 걸치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는 純

—無雜한 마음의 본연의 자세를 가리켜서 자연이라 지칭하고, 이를 귀중하게 여긴 것이다. 예를 들어 黃山谷(1045~1105)이 주렴계를 높여서 「茂叔은 인품이 대단히 고상하다. 마음이 담백하여 막힘이 없고, 마치 맑은 날의 화창한 바람과 비 개인 후 높이 뜬 밝은 달과 같다.²¹⁾고 하여 마음이 담백하고도 맑게 탁 트인 기상을 칭찬한 이 光風霽月과 같은 마음의 본연의 자세와, 또한 鄧迪이란 사람이 李延平(1093~1163)을 칭찬해서 「愿仲은 마치 얼음을 넣은 옥항아리와 높이 뜬 가을 달과 같다. 밝고도 투명하여 흠이 없다.²²⁾고 지칭한 바로 冰壺秋月과 같은 마음의 본연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 점 막힘이 없고, 구애받지 않으며 속박받지 않는 恬淡無欲한 마음의 본연의 자세는 유교 노장 불교의 구별없이, 동아시아의 역대 지식인들이 다같이 높이 평가한 인간 본연의 자세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송대 지식인들에 의해서 존중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자연존중의 입장이 외적인 物의 차원에서 내적인 마음의 차원으로 심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송대 유학자들이 애호하고 존중한 자연은, 단순히 감각적이고 취미적인 관상의 대상으로서의 개개의 자연물이 아니고, 이 보다 더 깊은 정신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호안국이 도연명과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한 것도, 도연명의 시 가운데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러움과 순진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호안국은 「심원」이란 두 글자에 표명되어 있는 도연명의 높은 경지를, 한걸음 더 나아가 儒教徒가 理想으로 양모하는 옛 聖天子 舜의 心事와 관련지어 말하고 있다. 『맹자』 盡心章句下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다. 순은, 요에게 발탁되기 이전은 마른 밤에 나물이라고 하는 극히 보잘 것 없는 식사밖에 할 수 없었던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결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거나 하늘을 원망하는 일 없이, 「마치 그대로 일생을 마칠 듯이」 유유하게 행동하였다. 후에 요에게 발탁되어

21) 『伊洛淵源錄』 濂溪事狀所引 濂溪詩序.

22) 『주자문집』 권97, 延平李先生行狀.

천자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름답게 장식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거기다 요의 두 딸의 시중을 받으며 인간으로서 최고의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순은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조금도 오만한 데가 없고 平然하게 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순이 부귀빈천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음을 칭찬한 것이다. 호안국에 의하면, 도연명의 「심원」이란 두 글자를 깊이 음미하면, 그 가운데 순의 기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호안국은 스승인 양구산도 도연명이나 순과 마찬가지로, 부귀빈천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지극히 높은 경지에서 서 있었다고 하여, 「더 이상 무엇을 구할 것인가. 마음은 속사에서 떨어져 있는데.」라는 一句로 이를 표명했던 것이다.

호안국은 실은 퇴계가 존경해 마지않았던 宋儒의 한 사람이다.²³⁾ 따라서 퇴계가 「도산서당」이란 시에서 순과 도연명을 들어, 성현이 마음 속에 그리고 있었던 세계에 대하여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실은 호안국의 「龜山誌銘辨」 가운데의 기술에서 시사받았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퇴계는 송대 儒者가 중시한 光風霽月이란 말을, 「清明高遠하여서 一毫의 滯吝(집착)이 없는 기상」²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풍류로 이름난 북송의 邵康節(1011~1077)이 지은,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라는 시²⁵⁾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23) 퇴계가 出處進退를 문제삼을 때, 종종 인용하고 있는 것이 호안국의 출처에 관한 견해이다. 예를 들면 『퇴계문집』 권16, 答奇明彦書에 「대체로 出處去就 문제는 마땅히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의논할 일이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이 간여할 바도 아닙니다. 胡康侯의 소견이 卓然하여 본받을 만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외에도 『퇴계문집』 권21 答李剛而書, 同卷25, 答鄭子中書 등에도 같은 내용의 발언이 있다. 이는 『伊洛淵源錄』 권13, 胡安國行狀略에 기재되어 있는 「이를 남에게 결정시킬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 역시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호안국의 말이 그 典據인 것이다.

24) 『퇴계문집』 권23, 與趙士敬書.

25) 『擊壤集』 권21, 清夜吟.

있다.

보내준 淸夜吟은 그 의미가 대개는 옳은 듯합니다. 다만 어리석은 내 생각으로는, 無欲自得한 사람의 청명하고 고원한 心懷가, 간혹 光風霽月의 때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치와 마음의 뜻이 만나게 되어, 천인이 합일하게 됩니다. 興趣가 超妙하면서도 潔淨精微합니다. 조용하면서도 막힌 데 없이 탁트인 기상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즐거움도 또한 끝이 없습니다.²⁶⁾

또한 『언행록』 권3에도 역시 북송의 文豪인 蘇東坡(1036~1101)의 「前赤壁賦」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辛酉年 4月 보름날, 선생은 형의 아들 교와 손자 安道 및 德弘과 더불어 濯纓潭에 배를 띄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盤陀石에 배를 대었다. 역탄에 이르러 닻줄을 풀고 술이 세 잔 든 후에, 선생은 옷깃을 가다듬고 단정히 앉아 前赤壁賦를 읊으시다 말씀하시기를 蘇公이 비록 病痛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에 욕심이 적었던 것은, 진실로 내가 가진 바가 아니라면 비록 털끝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다 이하의 몇 구절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일찍이 귀양갈 때에 棺을 싣고 갔다. 그 脫然하여 구속받지 아니함이 이와 같았다 라고. 이로 인해 淸風明月로 운을 나누어 明字를 얻게 되었다. 시에 이르기를, 水月蒼蒼夜氣淸, 風吹一葉泝空明, 匏樽白酒醺銀酌, 桂棹流光掣玉橫, 采石顛狂非得意, 落星占弄最關情, 不知百世通泉後, 更有何人續正聲이라고. 선생의 山水에 대한 이해는 이와 같았다.

(李德弘 記錄)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퇴계가 자연에서 얻은 경치가 참으로 청명하고도 고원했음을 알게 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 퇴계가 宋儒의 자연존중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었음도 알게 된다.

26) 『퇴계문집』 권36, 答李宏仲書.

III.

일반적으로 자연을 애호하는 정신과 자연애호의 문학적 표현인 산수시는, 모두 노장사상에 의해 형성된 超俗的인 隱逸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일컬어져 왔다. 퇴계의 시문을 읽어보면 과연 노장에 典據를 가진 어구나 은자 예찬의 구절도 종종 보게 된다. 전술한 「幽貞」이나 「考槃」 등은 실로 은자 예찬의 어구였다. 또한 「陶山記」 가운데 「물가에서 고기가 헤엄치며 노는 것을 보기도 하고, 배 가운데에서 갈매기와 노닐다.」라는 一句가 있는데, 이것 역시 은일의 즐거움을 觀魚狎鷗의 兩事에 의탁하여 말한 것이며, 『莊子』秋水篇과 『列子』黃帝篇에 전거가 있다. 전자는 莊子が濠梁의 다리 위에서 물고기가 유유히 노니는 것을 보고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 이야기이고, 후자는 갈매기와 친해진 해변에 사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다. 특히 이 갈매기 이야기는 이에 전거를 가진 시구가 종종 나오므로 이를 소개해 두련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 중에 갈매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었다. 매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 갈매기와 어울려 노닐며 즐거워 하곤 하였다. 여기에 날아드는 갈매기 수는 백 마리가 넘었다. 어느날 이 사내의 아버지가 “내 들자니 갈매기가 모두 너와 한 패가 되어 노닌다고 하니, 갈매기 한마리를 잡아다 주렴. 나도 데리고 놀고 싶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튿날 바닷가에 나가 보니 갈매기는 바다 위를 빙빙 돌 뿐 날아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상 속담에 최상의 言說은 말에 의존하지 않고, 최상의 행위는 (무엇을 하려는) 행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乖離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 해주고 있는 설화이다. 원래 자연과 인간은 사이 좋은 친구였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무위자연 내지는 無心 虛心の 경지에 서 있을 때

의 이야기이다. 「機 마음 가운데에 싹트면, 갈매기는 날아들지 않는다 .」²⁷⁾ 말하자면 인간의 마음에 약은 채하는 욕망이 싹터 자연에 대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자마자, 자연은 재빨리 그것을 간파하고 인간에게서 멀어져 갔다고 하는 것이다. 그 후로 바닷가에 떼지어 날으는 갈매기의 호탕한 자태는, 비좁은 새장에서 탈출하여 광활한 자연으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마음을 비운 隱君子의 가장 적합한 伴侶로, 또한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퇴계가 자작시 가운데에서 「要學沙鷗浩蕩遊」²⁸⁾ 등 갈매기를 읊은 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연장선 위에서 있었던 것을 말해 준다. 퇴계는 韓明澮란 인물이 豆毛浦 남쪽에 세운 狎鷗亭에 노닐면서, 이때의 감흥을 읊은 시를 몇 수인가 짓고 있는데, 이에 의해서도 갈매기에 비유해서 말한 퇴계의 속마음, 환언하면 대자연에의 회귀를 원하는 퇴계의 사색의 깊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지식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자주 화제에 오르곤 한다. 그것은 그들이 한편으로는 관인 정치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세제민, 치국평천하의 학문인 유교를 공부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玄學 즉 노장 불교와 같은 초속적인 方외의 학문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자연을 친구로 삼는 은일생활에 강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六朝시대에 이르러, 정치상황이 험악해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점차 현저해지고 있으며, 또한 육조시대의 지식인이 즐겨서 지은 산수시, 말하자면 자연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의 이상을 발견해 그것을 시로 읊은 것도, 노장이나 불교에 의해서 배양된 세속을 뛰어넘는 은일사상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관인 정치가로서의 삶의 방식과 세속에서 멀리 떨어진 은일자로서의 삶의 방식은 예컨대 「산림 가운데의 선비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고, 조정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선비는 나갈 수 없다」²⁹⁾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27) 『魏志』 권24, 高柔傳所引 孫盛語.

28) 『퇴계문집』 권1, 湖上園亭偶出效康節體.

29) 前掲書 권72, 王吉傳贊.

래는 이율배반적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육조시대 이래로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공존한다고 하는 기묘한 현상이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빈번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요즈음의 학자는 「중국인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유가가 되고, 실의에 빠지게 되면 도가가 된다.」³⁰⁾ 등가, 「公人으로서는 유교를 받들지만, 私人으로서는 노장 내지 불교를 받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³⁰⁾ 이것을 모순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 이러한 점은 퇴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觀魚狎鷗의 즐거움을 구해서 도산에 은거한 퇴계도 관인으로서의 신분을 버린 적이 없었고, 유학자로서의 입장을 放棄한 것도 아니었다. 과연 퇴계는 「陶山記」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釋明하고 있다.

옛 사람 중에 산림을 즐기는 사람을 보건대 두 종류가 있다. 玄虛를 사모하고 高尚을 일삼아 즐겨하는 사람이 있고, 도의를 즐겨하며 심성 기르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前說에 따른다면 아마도 제 한 몸을 깨끗이 하여 인륜을 어지럽히는 데 홀려, 그 심한 자는 鳥獸와 무리를 삼으면서도 그르다고 하지 않는다. 後說에 의한다면 즐기는 바의 것은 糟粕일 뿐으로, 그 가치 전할 수 없는 미묘함에 이르러서는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얻지 못할 것이니, 즐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후설을 따라 스스로 힘쓸지언정, 전설을 따라 스스로 속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 어느 여가에 이른바 세속의 영리가 나의 마음 속에 들어움을 알겠는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퇴계의 이른바 산림의 즐거움은, 노장적인 허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학자로서의 독서강학, 학문수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퇴계에 의하면, 산림을 즐기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

30) 森三樹三郎, 『중국문화와 일본문화』 - 중국인에 있어서의 니힐리즘과 정치적 관심의 공존 - .

나는 「현허를 사모하고 고상을 일삼아 즐기는 사람」 즉 노장적인 허무 사상을 배워 고답적인 超俗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논어』 微子篇에 나오는, 亂世에 절망한 나머지 인간사회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산새와 들짐승을 친구로 삼고 산 은자들이나 또한 任誕 放恣의 풍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한 세상을 산 竹林七賢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도의를 즐겨하며 심성 기르기를 즐겨하는 사람」인데, 퇴계가 취한 입장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이 「도의를 즐겨하며 심성 기르기를 즐긴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도의를 즐겨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맹자』 告子章句上에 「理義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함은 마치 芻豢이 우리 입을 즐겁게 함과 같다.」고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리라. 理義도 道義도 그 의미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왜 도의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그것은 도의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밖으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고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천연·자연의 것이기 때문이다.³¹⁾ 이러한 사고 방식은 자연애호 자연존중의 입장이, 마음에서 理로 심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퇴계가 「도의를 즐겨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悅」자의 의미를 또 한가지 다른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논어』 學而篇에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경우의 悅, 즉 학습에 의해서 얻게 되는 희열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후세의 배우는 자들에게 도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는, 우선 先聖先賢이 지은 책을 제외하고는 달리 없으므로, 따라서 「도의를 즐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도의가 적혀 있는 선성선현의 경전을 誦讀하고 학습함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을 가리키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논어』의 이른바 「爲己之學」이란 바로 이 도의의 학습이었던 것이다. 다음 「性을 기른다」는 것은 『맹자』의 이른바 存心養性의 學을 일컫는 것으

31) 주 34) 참조.

로, 혹 선성선현의 經傳을 학습하고, 혹은 山林泉石 사이를 배회하고 노닐으로써 마음의 정화와 인격의 도야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장의 무리들의 말에 따르면, 옛 성현의 책이란 말하자면 糟粕과 같은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그것을 학습해서 성현의 뜻을 알려고 해도 그것은 쓸데없는 노력의 낭비로, 거기에 아무런 즐거움도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³²⁾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자신은 선성선현의 책을 깊이 읽고 학습하여, 그것에 의해 자신의 심성을 길러가는 유학자로서의 길에 충실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의를 즐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명리추구에 얽매일 틈이 없기 때문이기에.

퇴계가 산림 가운데에서 사는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낀 이유는, 人欲이 소용돌이치는 名利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진정한 의미의 학문, 즉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학문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의를 함양하는 爲己之學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산림 가운데서 생활하는 즐거움을 중시한다고 하여도, 인간 천성에 기초를 둔 도의를 경시하고 결국에는 放恣任誕에 흘러버린 老將風의 은자와는 확실히 일선을 긋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퇴계가 산림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때에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그것이 선성선현이 지은 경전을 학습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다시 말하면 위기 지학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과 표리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언행록』 학문편에,

辛酉(퇴계61세)年 겨울, 선생은 도산 玩樂齋에서 거처하셨다. 닭이 울 때 일어나 반드시 장중하게 읊는 것이 있었는데, 그 一遍을 자세히 들어보니 곧 『心經附註』였다

는 일화가 있다. 이 일화 가운데 나오는 『심경부주』는 주지하는 바와

32) 『장자』 外篇 天道篇 제13, 輪扁寓話 참조.

같이 聖學의 心法을 모아놓은 책으로서, 퇴계가 嚴父神明과 같이 尊信한 책이다. 이는 퇴계가 산림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墮落放漫에 흐르는 일이 없이 스스로를 엄히 경계하고, 항상 선현의 책을 몸 가까운 곳에 두고 聖學의 습득에 애쓰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행록』 권3 「樂山水」에 적혀 있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본론을 마치기로 한다.

辛酉年 3월, 선생께서는 溪南의 齋에서 나와 李福弘 德弘 등을 데리고 도산으로 가실 때에 충정 소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다. 그 때에 산꽃이 만발하고 안개가 내려앉은 숲속은 맑고 고왔다. 선생께서는 杜詩³³⁾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백로 목욕함은 무슨 心事이고, 홀로 선 나무에 꽃이 피니 스스로 분명하네. 라는 구절을 읊으셨다. 덕홍이 그 뜻이 어떠한고 물었다.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하느니라. 군자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도 저절로 그러한 것인데, 은근히 이 뜻과 통한다. 배우는 자는 마땅히 그 義를 바르게 해서 利를 도모하지 아니 하고, 그 도를 밝혀서 그 功效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이 말을 실지로 체험해야 할 것이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참 학문이 아니다.

이 일화 가운데에 인용되어 있는 「군자의,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³⁴⁾이란 一句는 주자의 畏友였던 張南軒(1133~1180)의, 「생각하건대 義利의 구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고. 대저 聖學은 무엇인가 하려는 의도 없이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무엇인가 하려는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은, 천명의 끊임없는 所以, 性의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한 所以로서, 가르침의 무궁한 所以이다. 무릇 무엇인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것은 모두 인욕의 사

33) 『分門集注杜工部集』 권13, 愁.

34) 『張南軒文集』 권14, 孟子講義序. 주자는 『주자문집』 권89, 「右文殿修撰 張公 神道碑」 가운데에서 張南軒의 이 말을 인용하여 前聖이 말하지 아니한 性善 養氣의 설을 발명한 맹자의 공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至言이라고 絶讚하고 있다.

사로움으로 天理가 보존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義利의 나누어짐이다.」라는 一句에 典據가 있고, 또한 「그 誼를 바르게 해서 그 利를 도모하지 말고, 그 도를 밝혀서 그 공효를 헤아리지 말라.」는 말은 漢나라 董仲舒의 말로³⁵⁾, 程子 이래 宋儒가 특히 중시한 것이다.³⁶⁾ 이 두 가지는 송유의 자연존중의 입장이,³⁷⁾ 虛心이라든가 無欲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주관적 세계만에 끝나지 않고, 天理라든가 道義라고 하는 객관적인 理의 세계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중요하며, 퇴계의 자연존중의 입장도, 그 극치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퇴계는 전 생애를 통해서 산림의 즐거움을 계속 찾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산림의 즐거움은 즐기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이다. 여기에 소개한 일화는 그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山林泉石 가운데 노닐면서도 항상 진정한 유학자였던 퇴계의 참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박 양 자 譯)

35) 『漢書』 권56, 董仲舒傳 所收, 賢良對策.

36) 이 동중서의 말은 程子 이래 송유가 중시했다. 주자도 「白鹿洞書院揭示」 가운데 이를 인용하여 높이고 있다. 퇴계도 역시 『퇴계문집』 권19, 答黃仲學論 白錄洞規集解 등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37) 송유의 견해에 의하면, 자연 존중의 입장이 虛心이라든가 無欲이라고 하는 주관적 心의 세계에만 머물러 객관적 義理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猖狂自恣의 병이 생겨 老佛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점을 예리하게 파헤친 사람은 謝上蔡이다. 자세한 것은 『논어』 里仁篇의 「군자는 천하의 일에 있어서 오로지 주장함도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어서 義를 따를 뿐이다.」란 공자의 말씀에 관한 사상체의 해설을 보았으면 한다. 이 사상체의 견해에 대한 불교측의 반론이 고려本 金剛經五家解 卷上, 應無所住而生其心細注에 나와 있다.